

洪大容・李徳懋らのプリズムを通して見る日本の文雅

— 東アジア学芸共和国への助走 —

The East Asian Crescent: A Republic of Letters in Seoul

高橋博巳

Hiromo TAKAHASHI

1

1763年の通信使行で文化媒介者の役割を果たしたのは、成大中（1732～1809）や元玄川（1719～90）である。彼らが帰国後、周囲の人々に日本で見聞した文人活動を生き活きと伝えたおかげで、李氏朝鮮の北学派と呼ばれることになる思想家たちの文集のなかに少なからぬ日本の文人への言及がのこされることとなった。一例として洪大容（1731～83）の「日東藻雅跋」を挙げる。

斗南の才、鶴台の学、蕉中の文、新川の詩、蒹葭・羽山の画、文淵・大麓・承明の筆、南宮・太室・四明・秋江・魯堂の種種風致は、即ち我邦に論無し。之れを齊魯・江左の間に求むれども、亦た未だ得易からざるなり。況んや諸人は、未だ必らずしも極選為らざれば、則ち其の余は想う可きに足るなり。寧んぞ左海絶域を以て、之れを少なしとせんや。然りと雖も、文風競いて武力振るわず。技巧日に盪き、鉄剣日に鈍れば、則ち西隣の並びに其の福を受く。厥の利は博きかな。伊物二氏、宜しく以て吾が韓に尸祝すべし。

（『堪軒書』三）

ここに列举された「斗南」細合半斎（1727～1803）や「鶴台」滝弥八（1709～73）、また「蕉中」僧大典（1719～1801）、「蒹葭」木村蒹葭堂（1736～1802）、「魯堂」那波魯堂（1727～89）らは、多少とも近世学芸に関心のある者には既知の人物といえる。そもそも細合半斎が斗南と号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成大中に「北斗以南の一人」と称されたからである（大典「跋合麗王韓客唱和卷」、『小雲棲稿』十）。蒹葭堂の「画」もさることながら、頼春水（1746～1816）が、

世肅は好事名を著わす。雅より芸能多し。凡そ、書画篆刻、及び諸機巧、指を染めざる莫し。人最も其の画、及び物産の学を推す。余は則ち其の書を読み、善く要領を得たるを欽す。凡そ舶来の異籍、其の新旧同異、増損出入の類、歴歴暗記し、問いに随いて響応す。

（「在津紀事」下、『春水遺稿』別巻二）

と伝えているように、「世肅」は兼葭堂の字であるが、「好事」多才な人で周囲に大勢の同好の士が集まったのも頷ける。その安永八年より享和二年（1779～1802）までの来訪者と訪問先は、水田紀久先生ほか編の『完本兼葭堂日記』（藝華書院、2009年）によって一覧することができるが、残念ながら通信使を迎えたころの記録はない。春水によれば、兼葭堂は読み巧者だったという。そして大典の「兼葭雅集函序」は、「兼葭の集は、文を以て同じうするなり」に始まる格調の高いもので、兼葭堂の「和」と「礼」を重んじる精神が的確に述べられており、その結果交際範囲はついに「異域万里の外」にまで及んだというのが、大容らに感銘をもって受け止められたのであろう（『小雲棲稿』七）。

しかし「新川」岡田新川（1737～99）や「承明」福原映山（1735～68）となると、知名度はかなり落ちる。「文淵」朝比奈玄洲（？～1734）は、二次前の己亥1719年の通信使に応接した尾張藩の右筆で、その事績は『蓬島遺珠』（享保五年、1720刊）に伝えられているが、今では忘却の彼方に霞んでいる。

そこで改めて、このように必ずしも「極選」ではない人々が「才学」と「詩文筆画」の代表としてばかりでなく、「種種風致」という曰く言い難い魅力の持ち主として言及された意義は何だろうかと問うことにしたい。「才学」も「詩文筆画」も、それがどの程度のものかは、書かれたり描かれたりしたのを見ればおおよそ見当がつく。しかし「風致」だけは、その人自身を知らなければ捉えようがない。したがって洪大容はこれらの人々の人柄を伝え聞く機会があった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風致」を謳われた五人のうち、魯堂は通信使に随行して東海道を往復しているし（『東遊編』明和元年、1764刊）、井上四明（1730～1819）もまた備前岡山藩儒として牛窓で詩文を唱酬している（『槎客萍水集』）。そして日比野秋江（1750～1825）は岡田新川門下の儒者というふうに、実際に通信使との接触の機会が多かった人々である。そういう際の風雅な挙措に目を留めた成大中や元玄川を通じて、情報は洪大容らにもたらされたのであろう。

ところで洪大容がこう記したとき、「才学」や「詩文筆画」よりも「種種風致」のほうが貴重だという思いが次第に強くなってきたの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のも、のちに洪大容が北京に相似た文人を探して赴いたとき、念願叶って巖誠（1732～67）や潘庭筠（1742～？）・陸飛（1719～？）らと知り合ったさい、潘庭筠に「東方の風流佳話、願わくは之れを聞かん」と問われて、

我が東人、大抵鈍滞にして、風流の事は、絶えて伝う可き無し。

と謙遜しつつ、潘庭筠・巖誠の二人に向かって、

弟の二兄に於ける、其の才を愛するに非ざるなり。其の学を取るなり。其の学を取るに非ざるなり。其の心を慕うなり。只だ恨むらくは、言語通ぜず、逢別太だ忙しくして、未だ尽く深奥を叩く能わざることを。
 （『乾浄術筆談』、『湛軒書外集』二）

と述べていたからである。ここで注目されるのは、相手に求めるものが「才」や「学」ではな

くて「心」だという点である。人格を形成するのに「心」つまり人間性に問題があれば、いかに「才学」が優れていても何にもならないからである。

この点については、李徳懋（1741～93）も李雨邨（調元）宛て書簡に、

凡そ友を取るの道は、先ず其の品を看て、後に其の材を看る。（『青莊館全書』一九）

と記して、同様の姿勢を示している。朴齊家（1750～1805）もまた、

嗟乎、吾が東三百年、使价相接するも、一名士を見ずして帰るのみ。今、堪軒先生、一朝天涯知己を結び、風流文墨、其の翩翩を極む。其の人たるも、皆な依依として往日巻中の人なり。（『貞蕤閣集』四）

というように、燕行使300年の歴史のなかに、大容と巖誠や潘庭筠らの交流を正当に位置づけて、その画期的な点を強調している。これが新たなモデルとなって、学芸共和国に命が吹き込まれたのである。

2

李徳懋が編んだ「天涯知己書」は洪大容が清朝の中国に出かけたさいのドキュメントを集成したものであるが、そのなかに突如として兼葭堂が登場して読者を驚かせる。

日本人は江南に通う。故に明末の古器、及び書画・書籍・薬材、長崎に輻湊す。日本兼葭堂主人、木世肅、秘書三万巻を蔵す。且つ多く中国の名士と交わる。文雅方に盛んなる、我が国の比す可きに非ざるなり。（『青莊館全書』六三）

これは兼葭堂の蔵書情報が朝鮮の知識人の強い関心事だったことを示すものだ（大典「兼葭堂蔵書序」、『小雲棲稿』七参照）。ことに末尾の「文雅…我が国の比す可きに非ざるなり」の一言には、その心服のほどがうかがわれよう。李徳懋はこのほか「清脾録」（『青莊館全書』三二）や「耳目口心書」（同上、巻五二）のなかでも、折あるごとに「兼葭堂」の項目を立てて詳細に言及している。成大中宛て書簡に、「兼葭堂図、及び一百単八図」の借覧を申し出て、「天下の宝」「千古勝絶」と褒めちぎっていることとともに忘れがたい反応である（同上、巻一六）。

3

第三の柳得恭（1748～1807）の例も興味深い。李書九（1754～1825）に書き与えた「日東詩選序」にはこう記されている。

日本は東海中に在り。中国を去ること万里、最も我に近し。攷を其の国の著わす所の『和漢三才図会』の書に取れば、則ち詩書礼楽戦陣の法、以て桑門外道博奕戯具に至るま

で、我より之れを得ざる莫し。其の国を顧みるに風俗儂利に富み、淫伎巧匠多し。而るに独り詩に工みなること能わず。源氏より政を為し、羈縻絶えず。関白新たに立てば、必ず来たりて使いを請う。我れ、三品官一人を以て正使に充て、侍従一人、之れに副う。又た一人従事官と為し、文脚一人、製述官と為し、往きて之れを聘す。正副使・従事官、各おの書記一人を辟す。材官剣客良医画師吹唱擊毬、凡そ一芸有る者は、悉く幕中に致して、最も書記を重んず。一行皆な属目す。歳癸未、前任長興庫奉事元玄川重挙、是の選に膺る。(中略)

玄川翁、雅に篤厚にして、喜んで程朱の学を談じ、彼の中、益ます之れを重んじ、必ず老先生と称す。其の能文の士は、率ね医官积流多し。而して合離・井潜・那波斯曾・冨野義胤・岡田氏兄弟、尤も傑然為り。皆な之れと深く相交わる。其の帰後に及び、薑山居士、其の海航日記中の贈別詩六十七首を鈔し、名付けて『日東詩選』と曰う。余に属して之れが序を為らしむ。其の詩の高き者は三唐を模擬し、下き者は王李に翱翔し、侏離の音を一洗し、多とするに足る者有り。(『冷齋集』七)

あるいはこの「薑山居士」すなわち素玩亭、李書九(1754~1825)が編集した『日東詩選』も、洪大容が読んだ『日東藻雅』と同じものであったろうか。というのも双方ともに元玄川によって伝えられたものに拠っているばかりでなく、挙げられている日本の文人も概ね重複しているからである。「翱翔」は思うままに遊び回る意で、玄川が唱酬した日本の詩人たちの作が、上出来な部類は「三唐」に迫り、それほどでないものも「王李」の余波を受けて、ともかく和臭を脱した域に達していたという。「侏離」は異民族の言葉が理解できないさま。いずれにしても高い評価といえる。

4

第四の例は朴齊家の場合である。齊家は「戯れに王漁洋の歳暮人を懐かしむに倣う、六十首」の「小序」に、

余は百に一能無し。楽しみは賢士大夫と遊ぶこと、既に之れと交わり好し。又た終日麴々として已むること能わざるなり。人頗る其の間日無きを笑う。(『貞蕤閣集』初集)

と記し、その六十首のなかには、李德懋を筆頭に朴趾源(1737~1805)らの師友に続いて、会ったこともない滝鶴台や竺常、木弘恭(兼葭堂の名、孔恭とも)らが登場する。まず「竺常」すなわち大典について。

春秋辞令至今存 春秋の辞令 今に至りて存す
 封建千年姓是源 封建千年 姓は是れ源
 一部蕉中鈴木事 一部蕉中 鈴木の事
 直追班史駕中原 直ちに班史を追い 中原に駕す

「源」とあるのは徳川家の祖が源義家（1039～1106）の孫新田義重にさかのぼるとされていることに拠るか。「鈴木之事」は対馬藩士、鈴木伝蔵による崔天宗殺人事件の顛末を大典が書き記して通信使一行に与えたことをいう（「書鈴木伝蔵事」、『萍遇録』下）。末句は、その文体が前漢の正史『漢書』に迫る名文だという意。

「木弘恭」こと、兼葭堂にはこう詠まれている。

学半社中開講席 学半社中 講席を開き
兼葭堂裏盛文儒 兼葭堂裏 文儒盛んなり
風流何限成書記 風流何ぞ限らん 成書記
万里携来雅集図 万里携え来たる 雅集の図

「学半社」は細合斗南の塾の名前なので、若干の混乱があるものの、承句以下を兼葭堂主人がもし目にしたならば、会心の笑みを漏らしたにちがいない。「学半」は「学^{おし}うるは学ぶの半ばなり」（『礼記』学記）に拠る。転結句は、成大中も風流ではあるが、《雅集の図》を見ると浪華の風流もなかなか大したものだという意。

このように、洪大容に始まり李德懋、柳得恭、朴齊家に至るまで、ことごとく会ったこともない人物を友人に数え入れること自体、通念や偏見に囚われない学芸共和国に相応しい振る舞いといえるだろう。

5

通信使帰国後の展開がこうして大容の燕行に始まり、さらに一七七七年には李德懋・柳得恭・朴齊家・李書九ら四名の詩選『巾衍集』が北京にもたらされて、李雨邨・潘庭筠の評・序を得て、翌年には李德懋・朴齊家の二人が燕行使の一員として北京に派遣され、紀昀（1724～1805）や羅聘（1733～99）らとも交遊し、名実ともに学芸共和国の様相を呈するに至った。

それに対して、兼葭堂周辺ではどうだったろうか？ 管見に入った細合半齋の「重鋟韓本蒙求序」には、

是の本は、大典禪師、往年以酌に留職の時、獲る所にして、愛すること甚だし。乃ち手ずから之れを校し、帰院の後、書買、重梓^{すて}を請う。師業已に序して以て行わんことを許して、未だ果たさずして寂せり。 （『隱居放言』下、享和三年、1803序刊）

と見え、対馬の以酌庵輪住のさいに入手した「韓本蒙求」を大切にし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大典が朝鮮修文職にあった時期は安永七年から天明三年（1778～83）まで、実際に対馬に赴任したのは天明元年から3年間のことで、「異域万里の交」の人々が住む鷄林を指呼の間に望む地に赴いて何を思ったかを伝える詩文はのこされていないようだ。それだけに一層、ソウルの学芸共和国の華やきは私どもの目には眩しく映るのかもしれない。

洪大容과 李德懋의 프리즘을 통해 본 일본의 文雅

— 동아시아 학예공화국으로의 조주(助走)—

The East Asian Crescent: A Republic of Letters in Secoul

다카하시 히로미

高橋博巳

1

1763년 통신사행에서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은 성대중(成大中, 1732~1809) 그리고 원현천(元玄川, 1719~1790)이었다. 그들이 귀국 후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보고 들은 문인활동을 생생하게 전한 덕분에, 이씨조선의 북학과(北学派)라고 불리는 사상가들의 문집 안에 일본 문인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게 남겨지게 되었다. 한 예를 들자면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일동조아발(日東藻雅跋)」이 있다.

두남(斗南)의 재주와 학대(鶴臺)의 학술, 초중(蕉中)의 문장과 신천(新川)의 시(詩), 겸가(兼葭)와 우산(羽山)의 그림, 문연(文淵)과 대룡(大麓), 승명(承明)의 글씨, 남궁(南宮)·실(太室)·사명(四明)·추강(秋江)·노당(魯堂)의 이런저런 풍치(風致)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제노(齊魯)와 강좌(江左)의 사이에서 구한다 해도 또한 쉬 얻지 못한다. 하물며 이 여러 사람들은 굳이 최고를 선발한 것도 아니고 보면, 그 나머지는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다. 어찌 좌해(左海)의 절역(絶域)이라 하여 우습게 보겠는가? 그러나 문풍(文風)을 다투어 무력(武力)이 떨쳐지지 않고, 기교가 날로 더해져 철검(鐵劍)이 나날이 둔하게 되면 서쪽 이웃이 아울러 그 복을 받게 될테니 그 이익이 크다 하겠다. 이(伊), 물(物) 두 사람은 마땅히 우리나라를 위해 빌어야 할 것이다.¹⁾

여기에 열거된 ‘두남(斗南)’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齋, 1727~1803) 이나 ‘학대(鶴臺)’ 다키 야차치(滝弥八, 1709~1773), 그리고 ‘초중(蕉中)’ 소우 다이텐(僧大典, 1719~1801), ‘겸가(兼葭)’ 기무라 겐카도(木村兼葭堂, 1736~1802), ‘노당(魯堂)’ 나와 로도(那波魯堂,

1) 洪大容, 「日東藻雅跋」, 『湛軒書』內集卷3(叢刊 248冊 74面): “斗南之才, 鶴臺之學, 蕉中之文, 新川之詩, 兼葭羽山之畫, 文淵大麓承明之筆, 南宮太室四明秋江魯堂之種種風致, 卽無論我邦, 求之齊魯江左間, 亦未易得也. 况諸人者未必爲極選, 則其餘足可想也. 寧可以左海絶域而少之乎. 雖然文風競而武力不振, 技巧日盪, 鐵劍日鈍, 則西隣之并受其福, 厥利博哉. 伊物二氏, 宜以尸祝於吾韓矣.”

1727~1789) 들은, 다소나마 근세 학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애초에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齋)가 ‘두남(斗南)’이라는 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성대중(成大中)으로부터 ‘북두이남(北斗以南)의 한 사람’이라 불리었기 때문이다.²⁾ 그뿐만 아니라 겐카도(兼葭堂)의 ‘그림’에 대하여 라이 춘스이(賴春水, 1746~1816)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세속(世肅)은 호사명(好事名)을 나타낸다. 그는 원래 예능(芸能)에 탁월하다. 서화전각(書畵篆刻) 및 모든 기교(機巧)에 손을 대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 중에서도 그림과 물산(物産學)에 관한 학문이 추천할만하다. 나는 그의 책을 읽고 나서, 그가 터득한 요령이 감탄스러웠다. 무릇 배래(舶來)한 서적(書籍)의 신구동이(新旧同異)는 물론, 증손출입(增損出入)의 종류를 또렷하게 암기(暗記)하여, 질문에 따라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在津紀事』下, 『春水遺稿』別卷二)

‘세속(世肅)’은 겐카도(兼葭堂)의 자(字)이며 ‘호사(好事)’ 다재(多才)한 사람이었기에, 주위에 수많은 동호(同好)인들이 모뭉다는 사실도 수궁이 간다. 1779년에서 1802년까지의 내방자와 방문 장소는 미즈타 노리히사(水田紀久) 선생께서 편집한 『완본겐카도일기(完本兼葭堂日記)』(藝華書院, 2009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통신사를 맞이했던 시기의 기록은 없다. 춘스이(春水)에 의하면 겐카도(兼葭堂)는 독서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이텐(大典)의 「겐카아집도(兼葭雅集圖)」의 서문(序文)은, “겐카(兼葭)의 집(集)은 문(文)을 위함과 같다”라는 격조 높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겐카도(兼葭堂)의 ‘화(和)’와 ‘예(禮)’를 중시하는 정신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 결과 교제의 범위가 마침내 ‘이역만리(異域万里)외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홍대용들에게 감명을 주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³⁾

그러나 ‘신천(新川)’ 오카다 신센(岡田新川, 1737~1799)이나 ‘승명(承明)’ 후쿠하라 에이잔(福原映山, 1735~1768)으로 말하자면 지명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문연(文淵)’ 아사히나 겐슈(朝比奈玄洲, ?~1734)는 기해통신사(1719년)를 맞이한 오와리한(尾張藩)의 유허(右筆)⁴⁾ 씀다. 그의 사적(事績)은 『봉도유주(蓬島遺珠)』(1720년 간행)에 전해지지만 지금은 망각의 저편에서 희미할 뿐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이와 같이 반드시 ‘최고의 선발’이 아닌 사람들이 ‘재학(才學)’과 ‘시문필화(詩文筆畵)’의 대표이자,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풍치(種種風致)’라는, 말하자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매력의 소유자로 언급된 의의는 무엇인지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재학(才學)’도 ‘시문필화(詩文筆畵)’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쓰인 글과 그려진 그림을 보면 대략 짐작이 간다. 그러나 ‘풍치(風致)’만큼은 그 사람 자체를 알지 못하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대용은 작으나마 이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을 기회가 있었으리라 추측해 본다. ‘풍치(風致)’를 칭찬받은 5명 중에 노당(魯堂)은 통신사를 수행하며 도카이도(東海道)

2) 大典「跋合麗王韓客唱和卷」, 『小雲棲稿』十

3) 『小雲棲稿』七

4) 번(藩) 무가(武家)의 비석역할을 담당했던 문관(文官).

를 왕복했다.⁵⁾ 이노우에 시메이(井上四明, 1730~1819) 또한 비젠오카야마(備前岡山)의 번유(藩儒)로 우시마도(牛窓)에서 시문을 창수(唱酬)했다.⁶⁾ 그리고 히비노 아키에(日比野秋江, 1750~1825)는 오카다 신센(岡田新川) 문하의 유학자로 보여, 실제로 통신사와 접촉할 기회도 많았던 모양이다. 그러한 만남 중에 풍아한 거조(挙措)를 눈여겨본 성대중이나 원현천을 통하여, 그들의 정보가 홍대용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런데 홍대용은, 스스로 이렇게 기록하던 중에 ‘재학(才学)’이나 ‘시문필화(詩文筆畵)’보다 ‘이런저런 풍치(種種風致)’가 더 귀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을 까. 왜냐하면 나중에 홍대용이 베이징(北京)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문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바람이 이루어져 엄성(嚴誠, 1732~67), 반정균(潘庭筠, 1742~?), 육비(陸飛; 1719~?) 등과 사귀면서 반정균(潘庭筠)에게서 “동방(東方)의 풍류가화(風流佳話)에 대해 들려주기 바라오”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가 둔체(鈍滯)하기에, 풍류에 관하여 전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말하면서, 반정균, 엄성 두 사람을 향해,

아우는 두 형의 재주를 사랑함이 아닙니다. 학술을 얻어도 그 학술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사모함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만나고 헤어짐이 너무나 분주하게 이루어져 아직 심오한 경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함입니다.

(『乾淨術筆談』, 『湛軒書外集』二)

이렇게 슬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재주(才)’나 ‘학술(学)’이 아니라 ‘마음(心)’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재학(才学)’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心)’ 다시 말해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표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조원(調元) 이우촌(李雨邨)에게 보낸 편지에도 동일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무릇 친구를 얻는 길은, 우선 그 인품을 보고, 그 다음으로 그 재능을 봄이다.

(『靑莊館全書』一九)

박제가(朴齊家, 1750~1805)도 마찬가지다.

아아! 우리나라가 3 백년 간 사신을 서로 맞았지만 한 사람의 명사도 돌아옴을 보지 못했다. 이제 담헌(堪軒) 선생이 하루아침에 천애지기(天涯知己)를 맺어, 풍류(風流)와 문묵(文墨)을 지극히 펼치니, 그 사람은 모두 다 지난 날 책 속에서 만나보던 사람들이었다.⁷⁾

5) 『東遊編』 1764년 간행.

6) 『槎客萍水集』

7) 朴齊家, 『與徐觀軒』, 『貞菴閣集』 文集卷4 (叢刊 261冊: 661面) “嗟乎!吾東三百年使价相接, 不見一名士

이처럼 연행사(燕行使) 삼백 년의 역사 속에, 홍대용과 엄성, 반정균의 교류를 바르게 정립시켜, 그 획기적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 되어 학예공화국에 생명 이 불어넣어졌다.

2

이덕무(李德懋)가 엮은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는 홍대용이 청조(淸朝)인 중국에 출타했을 당시의 기록을 집성한 것이지만, 그 안에 느닷없이 겐카도(兼葭堂)가 등장하여 독자를 놀라게 한다.

일본인(日本人)은 강남과 통상하는 까닭에 명말(明末)의 고기(古器)와 서화(書畫) 및 서적(書籍)과 약재(藥材)들이 나가사키에 모여들었다. 일본의 겸가당주인(兼葭堂主人) 목세숙(木世肅)은 비서(秘書) 3만권(萬卷)을 간직해두고 중국의 명사와 많이 교류하여, 문아(文雅)가 바야흐로 성대하다. 우리나라에 견줄 수 있는 바가 아니다.⁸⁾

(『靑莊館全書』六三)

이는 겐카도(兼葭堂)의 장서 정보가 조선 지식인의 큰 관심거리쯤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⁹⁾ 특히 말미의 “문아(文雅)가 우리나라에 견줄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문장만으로도 얼 마나 감복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덕무(李德懋)는 이밖에도 「청비록(淸脾錄)」¹⁰⁾이라든지,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¹¹⁾ 안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겐카도(兼葭堂)’의 항목을 설정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대중(成大中)에게 보낸 서간에는 ‘겸가당도(兼葭堂圖)’ 및 ‘일백단팔도(一百單八圖)’의 차람(借覽)을 의뢰하며 ‘천하의 보물’ ‘천고승절(千古勝絶)’이라고 극구 칭찬했던 사실도 잊기 어려운 반응이다.¹²⁾

3

셋째로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예도 흥미롭다. 이서구(李書九, 1754~1825)에게 써준 「일동시선서(日東詩選序)」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日本은 동해 가운데 있고 중국과는 만리나 떨어져 있어, 우리와 가장 가깝다. 그 나라에서 지은 『화한삼제도회(和漢三才圖會)』란 책을 보면 시서예악(詩書禮樂)과 전진(戰陣)의 방법에서부터 상문(桑門)의 외도(外道)와 노름하는 놀이기구까지 우리로부터 얻지

而歸耳。今湛軒先生一朝結天涯知己，風流文墨，極其翩翩，其人者皆依依焉往日卷中之人也。”

8) 李德懋 「天涯知己書」, 『靑莊館全書』 권 63(叢刊 259冊 123面): “日本人通江南,故明末古器及書畫書籍藥材,輻湊于長崎。日本兼葭堂主人木世肅,藏秘書三萬卷,且多交中國名士,文雅方盛,非我國之可比也。”

9) 大典 「兼葭堂藏書序」, 『小雲樓稿』七을 참조

10) 『靑莊館全書』三二

11) 앞의 책, 卷五二

12) 같은 책, 卷一六

않은 것이 없다. 살피건대 그 나라는 부유하고 풍속은 약삭빨라 음란한 기교와 공교로운 장인바치가 많다. 하지만 유독 시만은 잘하지 못했다. 원씨(源氏)가 정사를 맡은 이래로 기미(羈縻)함이 끊이지 않았다. 관백(關白)이 새로 서면 받드시 사신을 청하러 오니, 우리는 삼품관(三品官) 한 사람을 정사(正使)에 충당하고, 시종(侍從) 한 사람을 붙여 주었다. 또 한 사람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문함(文啣)을 맡은 한 사람을 제술관(製述官)으로 삼아 가서 방문하쥬다. 정부사(正副使)와 종사관(從事官)은 저마다 서기(書記) 한 사람 씩을 두었다. 재관(材官)과 검객(劍客), 양의(良醫)와 화사(畫師) 및 취창격구(吹唱擊毬) 등 무릇 한 가지 재주가 있는 자들은 모두 막중(幕中)으로 불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기(書記)여서 일행이 모두 눈길을 주었다. 기미(癸未)년에 전임(前任)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 중거(重擧) 원현천(元玄川)이 그 책임에 뽑혔다. (중략) 현천옹(玄川翁)은 맑고도 도타워 정주학(程朱學)을 애기하길 좋아하니, 저들 가운데서 더욱 이를 중히 여겨 받드시 노선생(老先生)으로 일컬었다. 능문(能文)의 인사로는 의관(醫官)과 석류(釋流)가 많았는데, 합리(合離)·정잠(井潛)·나파사증(那波斯曾)·부야의운(富野義胤)·강전씨(岡田氏) 형제(兄弟) 등이 특히 우뚝하쥬다. 모두들 그와 더불어 깊이 서로 사귀었다. 돌아온 뒤에는 강산거사(薑山居士)가 그 항해일기(海航日記) 가운데 실려 있는 증별시(贈別詩) 67수를 가려 뽑아 이름하여 『일동시선(日東詩選)』이라 하고, 내게 서문을 부탁하쥬다. 그 시는 높은 것은 삼당(三唐)을 모의하쥬고, 낮은 것은 왕세정과 이반룡을 고상(翺翔)하니 주리(侏離)의 소리를 깨끗이 씻어 훌륭한 점이 있었다.¹³⁾

‘강산거사(薑山居士)’ 소완정(素玩亭)과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편집한 『일동시선(日東詩選)』도, 홍대용이 읽은 『일동조아(日東藻雅)』와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양쪽 모두 원현천(元玄川)에 의해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론되는 일본 문인도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고상(翺翔)’은 자유로이 마음대로 유희(遊回)한다는 뜻으로, 원현천이 서로 주고받은 일본 시인들의 작품이, 잘 지은 부류는 ‘삼당(三唐)’에 육박하고,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왕세정과 이반룡’의 여파를 받아, 어찌 되었든 간에 일본 색채를 벗어난 씬역에 도달해 있다는 말이다. ‘주리(侏離)’는 이민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어느 쪽이든 결국 높은 평가라 할 수 있다.

4

네 번째 예는 박제가(朴齊家)의 경우이다. 박제가는 「장난삼아 왕어양(王漁洋)의 세모회인시(歲暮懷人時) 60수를 분떠 짓다」의 ‘소서(小序)’에,

13) 柳得恭, 『日東詩選序』, 『冷齋集』卷7(叢刊 260책 111면) : “日本在東海中,去中國萬里,最近於我. 取攷其國所著和漢三才圖書,則詩書禮樂戰陳之法,以至桑門外道博奕戲具,莫不自我得之. 顧其國富風俗儂利,多淫伎巧匠,而獨不能工詩. 自源氏爲政,羈縻不絕,關白新立,必來請使. 我以三品官一人充正使,侍從一人副之,又一人爲從事官,文啣一人爲製述官,往聘之. 正副使從事官各辟書記一人,材官劍客良醫畫師吹唱擊毬凡有一藝者,悉致幕中,而最重書記,一行皆屬目焉. 歲癸未,前任長興庫奉事元玄川重擧膺是選. (중략) 玄川翁雅篤厚,喜談程朱之學,彼中益重之,必稱老先生. 其能文之士,率多醫官釋流,而合離井潛那波斯曾富野義胤岡田氏兄弟,尤爲傑然. 皆與之深相交. 及其歸後,薑山居士鈔其海航日記中贈別詩六十七首,名曰日東詩選,屬余爲之序. 其詩高者摸擬三唐,下者翺翔王李,一洗侏離之音,有足多者.”

나는 백에 한 가지도 능한 것이 없으나 현사대부(賢士大夫)와 더불어 노니는 것을 즐기 고. 이와 더불어 사귀는 것을 좋아하여 또 온 종일 힘써도 능히 그만 두지 못하니, 사람 들이 한가한 날이 없음을 웃곤 한다.¹⁴⁾

이렇게 기록했고, 그 60 수에는 이덕무(李德懋)를 필두로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등 사 우(師友)에 이어 만난 적도 없는 다키 가쿠다이(滝鶴台)나 지쿠쥬(竺常), 보쿠코쿄(木弘恭)¹⁵⁾ 등이 등장한다. 아래는 우선 ‘지쿠쥬(竺常)’ 다시 말해 다이텐(大典)에 관한 글이다.

春秋辞令至今存 춘추(春秋)의 사령(辞令)이 이제껏 남았으니 封建千年姓是源 봉건천년(封建千年)에 그 성(姓)은 원(源; 미나모토) 씨일세. 一部蕉中鈴木事 한부 초중(一部蕉中)의 슝목(鈴木; 스즈키) 사건(事) 적은 글은 直追班史駕中原 곧바로 반사(班史)를 쫓아 중원(中原)을 능가하리.

‘원(源)’은 도쿠가와(徳川) 집안의 선조가 미나모토 요시이에(源義家, 1039~1106)의 손자 닛타 요시시게(新田義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래에 근거했다고 추측된다. ‘슝목의 사건(鈴木事)’은 쓰시마(対馬) 번사(藩士) 스즈키 텐조(鈴木伝蔵)가 일으킨 최천종(崔天宗) 살인 사건의 전말을 다이텐(大典)이 기록하여 통신사 일행에게 전했던 사실을 이른다.¹⁶⁾ 마지막 구(句)는 그 문체가 전한(前漢)의 정사(正史)『한서(漢書)』에 필적하는 명문(名文)이라는 뜻이다.

‘목홍공(木弘恭)’ 즉 겐카도(兼葭堂)에 대해서는 이렇게 읊고 있다.

学半社中開講席 학반사(学半社)가운데서 강석(講席)을 열었으니 兼葭堂裏盛文儒 겐가당(兼葭堂)안에는 문유(文儒)가 성대하다 風流何限成書記 풍류(風流)는 끝이 없어 성서기(成書記)꺼서 万里携来雅集圖 만리(万里)에 아집도(雅集圖)를 가지고 오셨구려.

‘학반사(学半社)’는 호소아이 도난(細合斗南)이 연 사숙(私塾)의 이름이기에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승구(承句) 이하를 겐카도(兼葭堂)가 혹시 보았다면, 틀림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심의 미소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학반(学半)’은 “가르침(学)은 배움의 반(半)이다”¹⁷⁾라는 고사에 근거한다. 전결구(轉結句)는 성대중(成大中)도 풍류(風流)이기는 하지만 《아집의 그림(雅集圖)》을 보니 낭화(浪華; 오사카 지역)의 풍류도 꽤 대단하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처럼 홍대용을 시작으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만난 적도 없는 인물을 우인(友人)에게 가르쳐주는 행위 자체가, 통념이나 편견에 구애 받지 않는 학예공화

14) 朴齊家貞, 「戲傲王漁洋歲暮懷人 六十首 并小序」, 『貞菴閣初集』(叢刊 261冊 469面): “余百無一能,樂與賢士大夫遊,既與之交好,又終日臺臺不能已也.人頗笑其無閒日焉.”

15) 원래 한자는 木弘恭.弘恭은 겐카도(兼葭堂)의 이름이다.

16) 「書鈴木伝蔵事」, 『萍遇録』下

17) 『礼記』学記

국(学芸共和国)에 어울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5

통신사가 귀국한 후의 전개는 이렇다. 홍대용의 연행(燕行)을 시작으로, 1777년에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4명의 시선(詩選) 『진연집(巾衍集)』이 베이징(北京)에 전해졌고, 이우촌(李雨邨), 반정균(潘庭筠)의 평(評)과 서(序)를 얻었다. 다음 해에는 이덕무, 박제가 두 사람이 연행사의 일원으로 베이징에 파견되어 기운(紀昀, 1724~1805)이나 나병(羅聘, 1733~1799) 등과 교류(交遊) 하겠으니, 명실상부한 학예공화국의 양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겐카도(兼葭堂)의 주변은 어떠했을까? 개인적인 소견이 포함된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齋)의 「重鋟韓本蒙求序」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이 책은 다이텐선사(大典禪師)가 예전에 이테이(以酏)에 유직(留職)했을 당시에 얻은 이후로 지극히 아껴왔다. 본인이 직접 교합(校合) 하겠고, 원(院)에 복귀한 후에는 서적상(書賈)에게 중재(重梓; 증판)를 부탁했다. 이미 서장(序)을 써서 가지고 가라고 허락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여 아쉽다. (『隱居放言』下, 享和三年, 1803 序刊)

다이텐(大典)이 쓰시마(對馬)의 이테이암(以酏庵)에 거주했을 당시에 입수한 「한본몽구(韓本蒙求)」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다. 다이텐이 조선수문(朝鮮修文)의 직(職)에 임명된 시기는 1778년부터 1783년까지이지만, 실제로 쓰시마에 부임한 것은 1780년부터 3년간이었다. ‘이역만리의(異域万里)’의 교우(交友)들이 살고 있는 계림(鷄林)을 지호지간(指呼の間)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땅에 부임하여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아쉽지만 전해 내려오는 시문(詩文)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하기에 더욱 서울 학예공화국의 화려한 흥겨움이 한층 더 우리들의 눈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The East Asian Crescent: A Republic of Letters in Seoul

0

Here I intend to show you how a “Republic of Letters” in East Asia was formed in Seoul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1

First, I wish to discuss this issue from the following proposition: in 1764 the 11th Korean Embassy to Japan met many Japanese literati and exchanged information with them, in particular with Kimura Kenkadō's group in Osaka. Although Kenkadō was a merchant who brewed and marketed the alcoholic beverage, *sake*, at the same time he was a literati painter, poet and naturalist, as well as an eminent Encyclopedist. Furthermore, at this time he was still a young man in his late twenties. Kenkadō's extensive activitie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Korean Embassy. Seong Dae-jung (成大中), Secretary to the Ambassador, wished to join a gathering of poets at Kenkadō's house, which was held monthly on the 16th. However, members of the Korean Embassy did not have the freedom to go out. So Kenkadō painted a picture of a poetry gathering with captions written on it at the request of Seong Dae-jung. Kenkadō sent it, entitled “A Poets' Elegant Party at Kenkadō's House.” He also gave a set of seal impressions, called *An Album of Seals for the Korean Embassy* (東華名公印譜) to Seong Dae-jung and the others as a souvenir. In those days, seal engraving was an important cultural accomplishment. Kenkadō furthermore had a large collection of rare books and opened his library to intellectuals. The monk-poet Daiten (大典) wrote that Kenkadō placed his library at a frugal scholar's service. For Kenkadō, the spread of knowledge came before an individual's luxury. He also engaged in publishing. His first publication was of Daiten's collected poems, *Sakuhisyu* (昨非集), published in 1761. Such books are called Kenkadō editions (兼葭堂版) and are invaluable not only to intellectuals of the time, but also to us toda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Kenkadō's library and his publications were very impressive to the Korean Embassy.

2

Seong Dae-jung brought those souvenirs back home and reported on Kenkadō's activities to his friends. Consequently many Korean thinkers set a high value on Kenkadō's activities. For instance, Hong Dae-yong (洪大容) wrote that Japanese literati, including Kenkadō, were superior to both Korean and Chinese literati. This judgment led to his departure. Hong Dae-yong then traveled to China in search of splendid literati like Kenkadō. Fortunately Hong Dae-yong met by chance the ideal literati trio, Yan Cheng (嚴誠), Pan Tingyun (潘庭筠) and Lu Fei (陸飛), in 1766. They were candidates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Hong Dae-yong formed a warm friendship with them. He said to Pan Tingyun, “Now we enjoy universal peace in the world; there is no need to give special consideration either

to oneself or to another (but just treat all equally as friends).” Then Pan said, “We’ve made friends with you permanently in this distant place. If I become a government official and hold a diplomatic post in your country in the future, I will call on you.” Hong Dae-yong said to Yan Cheng and Pan Tingyun, “I don’t value your talent but judge your learning. More precisely, I don’t judge even your learning but idolize you for your minds.” Mind and character are more important here than anything else. The four were firmly bound together by their characters.

3

By the way, I found by chance Lu Fei’s and Pan Tingyun’s seals in an album of seals by Ding Jing (丁敬) and Huang Yi (黃易). Almost all literati had an interest in seal engraving, and associated with seal engravers. Ding Jing made a seal engraving ‘Lu Fei Qi Qian’ (陸飛起潛) for Lu Fei, and wrote that Lu Fei was a top candidate for the local examination at Hangzhou. Huang Yi also engraved ‘Yi You Xie Yuan’ (乙酉解元), ‘Mai Hua Mai Shan’ (彔画買山), ‘Zi Du Hang’ (自度航) and so on for Lu Fei, and also engraved ‘Pan Tingyun Yin’ (潘庭筠印) for Pan Tingyun. They belonged to the same spiritual climate of their time.

4

In 1777, *An Anthology of Four Korean Poets* (韓客巾衍集) was first brought from Korea by Yu Keum (柳琴) to the Chinese literatus, Li Yucun (李雨村). Just then Pan Tingyun visited Li Yucun’s house and happened to find them together. Both literati made relevant comments and each wrote a preface. The four Korean poets, Yi Teong-mu (李德懋), Yu Deuk-gong (柳得恭), Pak Je-ga (朴齊家) and Yi Seo-gu (李書九), formed a group called the North School thinkers. They respected Chinese civilization and were eager to learn from China at that time, going against the tide of those days in Korea. Pan Tingyun wrote in his preface that although he didn’t know the four poet’s daily lives, he discerned their bright characters and open mindedness in their poems. He imagined they were unselfish person with gentle minds. Therefore he concluded that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were many people of virtuous character in Korea. This was Pan Tingyun’s human insight.

Next year Yi Teong-mu and Pak Je-ga were dispatched to Beijing as envoys to China. Yi Teong-mu wrote a letter to Li Yucun saying that he chose his friends by their character, and then probed that person’s talent. It is clear that he put character and nature before talent and ability just as Pan Tingyun did. This is just the type of attitude that made the formation of a “Republic of Letters” between China and Korea possible. Yi Teong-mu and Pak Je-ga met other Chinese literati, for instance Ji Yun (紀昀) and Luo Pin (羅聘). Ji Yun was a great scholar and eminent literatus. He compiled the *Siku quanshu* (四庫全書) and is author of the essay, *Yuewei Caotang Biji* (閱微草堂筆記). Luo Pin was a leading member of the Yangzhou Baguai (揚州八怪) as a disciple of a distinguished literatus, Jin Nong (金農).

Ji Yun wrote a poem to Pak Je-ga:

偶然相見即相親
別後勿々度幾春

倒屣常迎天下士
吟詩最憶海東人
関河両地無書札
名姓頻年問使臣
可有新篇懷我未
老夫双鬢漸如銀

We met by chance and became good friends.

After parting, how many springs passed by so quickly?

I always greet at the door in confusion when a distinguished person of the time visits,

When I compose poems, I remember the people that live to the east of the sea (Korea) .

We have no exchange of letters because we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I ask the Korean envoy if he knows my friend's name every year.

Maybe my friend makes a poem remembering me with nostalgia.

Recently I've gotten gray-haired.

This poem conveys to us the strength of the affinities Ji Yun felt with Korean poets. Above all, lines 3 and 4 connote that Ji Yun admired Pak Je-ga's talent and character.

Likewise, Pak Je-ga composed a poem on Ji Yun;

曉嵐今竜門
胸涵四庫富
灤陽説鬼楽（乗）
鬼亦嘲学究
推轂戴東原
遺書為我購

Xiao-lan（紀曉嵐）is a modern-day Sima Qian（司馬遷）.

The treasure of the *Siku quanshu* was entrenched in his mind

He mentioned a ghost at Luan Yang

The ghost laughed at the scholar

He recommended Dai Don-yuan（Dai Zhen）at the same time

Then I purchased Dai's posthumous works on the advice of Ji Yun

Ji Yun wrote *Summering at Luan Yang*（灤陽消夏録）in 1789, and reported that Luo Pin could see ghosts. Luo Pin was generally known as a painter of ghosts. It is interesting that this same person recommended Dai Zhen（戴震）, a great master of the Evidential School. Consequently Pak Je-ga purchased Dai's posthumous works. In this poem Gothic tastes coexist with positivism.

Pak Je-ga wrote a poem entitled Luo Liangfeng（羅兩峯）;

兩峯師冬心

筆墨又一變
二兒各名世
練塘及鉄研
文如李孝光
岱宗開新面

Liang-feng (Luo Pin) apprenticed himself to Jin Nong (Dongxin)
Thereupon his painting and calligraphy changed completely
His two children also were well-known painters
Liantang and Tieyan
His style is like Li Xiaoguang (李孝光)
He opened up a new field of Dai Zong: Taishan (泰山)

Pak Je-ga recognized a change in Luo Pin after the latter began studying under Jin Nong. He became acquainted with typical Chinese artists of that time. Meanwhile, Luo Pin painted the Pak Je-ga's portrait. In such a manner the "Republic of Letters in East Asia" steadily took shape.

Pak Je-ga was particularly close with Pan Tingyun. He wrote about Pan Tingyun in his poem:

蘭公夙緣重
万里三相見
漸看禪理精
偏憐宦遊倦
拈花送遠客
經声度深院

Destiny has kept Mr. Pan and me together very tightly
We have met three times in spite of the distance
It seems that you will reach the truth of Zen gradually
I share your feelings in which you got tired of serving in the Imperial government
You took the flower and sent it to me from far away
I suppose the voices of reading classics have come over the deep temple

Pak Je-ga saw through to the transition of Pan's mindset from that of a senior government official to that of a hermit who was focused on Buddhism. This great amplitude from government official to hermit increased the appeal of the "Republic of Letters of East Asia".

5

After that did Yi Teong-mu, Yu Teuk-gong, Pak Je-ga and Yi Seo-gu continue to remember the Japanese literati's activity? Yi Teong-mu wrote about Kimura Kenkadō in his *Record of a Pure Spleen* (清脾録), Yu Teuk-gong wrote an introduction to *An Anthology of Japanese Poetry* (日東詩選序), and

Pak Je-ga wrote a poem about Kenkadō;

学半社中開講席
蒹葭堂裏盛文儒
風流何限成書記
万里携来雅集図

In fact, the Gakuhan sha (the ‘Learning by Education’ school) was directed by Hosoi Hansai (細合半斎), a member of a Kenkadō’s group. At any rate, many people around Kenkadō were learned and refined. Pak Je-ga wrote that Seong Dae-jung was not the only man of refined taste. This was because painting “A Poetic Gathering at Kenkadō’s House” told us that Kenkadō’s group was mature and refined. Pak Je-ga rated Kenkadō very highly on account of his wonderful painting. Finally, Yi Seo-gu compiled *An Anthology of Japanese Poetry* (日東詩選). The four poets participated in Qing Dynasty China, and didn’t forget to refer to the Japanese literati at the same time. This is just the phenomenon I have named a “Republic of Letters in East Asia.”

〔後記〕小論は三部からなり、2010年9月10日、ソウルの漢陽大学校韓国学研究所主催の国際学術会議「1763年癸未通信使と東アジア文化接触」に招かれて発表したものを中心に、当日の通訳を務められた姜宇源庸氏（漢陽大学校）による翻訳、ならびに今年8月17日、同じくソウルの中央大学校で開催された国際比較文学会（ICLA）において発表した“The East Asian Crescent: A Republic of Letters in Seoul”とを、同じ時期に執筆した同一テーマを扱ったものであるという理由で一括したものである。こうして日英韓の三カ国語でまとめることができたのも、漢陽大学校教授鄭珉教授や前記の姜宇氏はじめ、多くの韓国の先生方、英文原稿の校閲者オークランド大学のローレンス・マルソー教授らの御蔭である。記して深甚の謝意を表す。わけてもICLAでは、大阪からソウル、北京を経て、ハノイに至る東アジア全域を視野に入れてまさに風呂敷を広げた発表を行ったところ、大邱のKeimyung Universityの金榮鎮教授から「嘉林」が扶余の近くの林川の古地名であるという教示を得て、私の仮説は脆くも崩れ去ってしまい、その結果拙稿のチャプター6は削除した。唐突に終わっているのはそのためである。金教授の御教示のおかげでこれ以上の間違いを犯さなくてすんだわけであるが、当夜の漢江にかかる半月を格別の感慨をもって眺めたことは終生忘れないだろう。しかし、同時にこの延長線上に越南と朝鮮の外交ルートを通じて詩文の交換があったことなどが確認できたことについては、次の機会に譲りたい。